
2024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

질의응답

2024. 03.

목 차

1. 유망 SaaS 개발 · 육성 지원 1
2.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 8
3.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역량 지원 11
4.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 확산 12

2024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 질의응답

(’24.03.05, NIPA 클라우드산업팀)

1 유망 SaaS 개발 · 육성 지원

Q1. 사업의 CSP의 경우, 외산 클라우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 ▶ 네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4개 트랙별로 참여 요건은 다릅니다. 스타트업, 전환, K클라우드 트랙은 국내 CSP 대상으로 신청가능하며, 고도화 트랙은 기존 개발 SaaS의 인프라 활용의 연속성을 위해 좀 더 폭넓게 국내·외 CSP 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2. 사업화 실적의 경우 최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 사업화 실적은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각 평가 항목별 배점 사항에 사업화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있으니 이 점 고려하셔서 달성가능한 목표 매출액을 필수로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Q3. 비용이 기간에 비해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인건비로만 써야 하는지요?

답변

- ▶ 본 사업은 SaaS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정 범위내에서 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 비목별 별도 상한액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SaaS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개발자 등 전문인력 인건비, 인프라 활용료, 외부 인증기관 시험비, 컨설팅 비용,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매비용, AI API 구매 임차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SaaS 사업화 비용으로는 언론홍보, 전시회·컨퍼런스 참가 등 비즈니스 비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Q4. 다른 과제에 비해 개발비가 기간에 비해 꽤 많은 것 같은데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인건비로만 써야 하는지, 혹은 다른 권장 사항도 있는지요?

답변

- ▶ Q3과 동일
- ▶ 본 사업은 SaaS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정 범위 내에서 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 비목별 별도 상한액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SaaS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개발자 등 전문인력 인건비, 인프라 활용료, 외부 인증기관 시험비, 컨설팅 비용,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매비용, AI API 구매 임차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SaaS 사업화 비용으로는 언론홍보, 전시회·컨퍼런스 참가 등 비즈니스 비용으로 활용합니다.

Q5. 사업비 산정시 인건비는 직급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으로 책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는 현물로도 편성 가능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현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비중을 고려하셔서 편성하시면 됩니다

Q6. SaaS스타트업은 회사 설립일자가 언제까지 여야 신청 가능한가요 ? 개인회사 법인회사 구분 없나요?

답변

- ▶ 21년 1월 1일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법인 사업자 여야합니다.

Q7.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불가하고, 단독 수행입니다.

Q8. K-SaaS 는 반도체분야만 가능한가요?

답변

- ▶ 반도체 분야에서 쓰이는 SaaS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SaaS를 개발하되 과제 수행에 있어 AI반도체(NPU)를 활용하셔야 하는 트랙입니다.

Q9. 작년에 전환과제를 진행한 경우 올해 고도화 트랙에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 ▶ 네,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지원받은 과제내용과 금번 사업 참여를 통해 개발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전환한 기존 제품에 신규기능 추가, 상품성 개선 등 SaaS로 고도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해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선정 이후 추후 기지원받은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심의하기 때문에 금번 과제 수행 내용이 기존 수행한 과제와의 차별화된 내용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셔야하고, 중복이 확인될 경우 선정되더라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0. 해외 CSP 활용 가능할까요?

답변

- ▶ SaaS 고도화 트랙만 CSP·MSP Pool에 등록된 국내 및 외산 CSP기업을 선택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트랙(스타트업, 전환, K-클라우드)은 국내CSP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Q11. 작년에 지원했었다가 탈락한 제품으로 재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지원하시는 것이 아닌, 해당 서비스의 개발(신규개발·전환·고도화)과 사업화를 과제기간 내 수행하시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체화해서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Q12. SaaS 고도화 사업은 기존 SaaS를 고도화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기존 SaaS가 된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즉 클라우드서비스 확인제나 CSAP 등을 인증받은 것을 기존 SaaS라고 하는지 아니면 자체 R&D로 컨테이너 구조로 PaaS위에 서비스가 되는 것이라면 모두 기존 SaaS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 ▶ 별도의 외부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기존에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로, 구독형 요금 체계를 갖춘 서비스를 보유한 경우 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 등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제출서류 붙임 10에 따라 자유양식으로 해당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13. 혹시 인건비로 100% 계산해도 괜찮나요?

답변

- ▶ 인건비로 100%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100%로만 과제비 편성 시, 과제기간동안 인력의 조정·퇴사·신규직 입사에 따른 변경에 따라 과제비 전체가 움직이고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집행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14.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발실 임차료도 지원 대상인가요? 기존에는 개발실 임차료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거 같습니다.

답변

- ▶ 일회성 회의, 행사로 인한 장소 임차료는 가능하나, 사업 수행기간 동안 개발실 임차료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금액의 정산 시 실제 과제 참여인력만이 개발실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해당 개발실이 없이는 과제 수행이 불가한 것인지 사실확인이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Q15. 시스템의 SaaS 전환 시에 기구축된 클라우드형 시스템에 통합하려고 하는데 해당 개발내용도 포함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가요?

답변

- ▶ 기구축된 클라우드형 시스템이 구축중이었다면, SaaS전환 트랙으로 들어 오시면 되고, 구축완료 후 사업화진행되었다면, SaaS고도화 트랙으로 들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행계획서 작성 시 기구축내용 기재하는 표가 있으니 잘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Q16. 사업화 실적의 경우 최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 Q2 답변과 동일합니다.
- ▶ 사업화 실적은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각 평가 항목별 배점 사항에 사업화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있으니 이 점 고려하셔서 달성가능한 목표 매출액을 필수로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Q17. 작년 유망 SaaS 스타트업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했던 경우 올해 같은 트랙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 경우 고도화 트랙 참여는 가능한가요?

답변

- ▶ 네, 21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스타트업 트랙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도화 트랙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지원받은 과제내용과 금번 사업 참여를 통해 개발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동일 제품에 신규기능 추가, 상품성 개선 등 SaaS로 고도화 하고자하는 내용을 제안해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선정 이후 추후 기지원받은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심의하기 때문에 금번 과제 수행 내용이 기존 수행한 과제와의 차별화된 내용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셔야하고, 중복이 확인될 경우 선정되더라도 과제 탈락될 수 있습니다.

Q18. 사업계획에 있어 외부 인력도입, 외주 용역계획을 포함하거나 컨소시엄 협업체 형태로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답변

- ▶ 과제 지원은 단독지원만 가능하고 컨소시엄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 계획에 있어 외주 용역계획을 포함(수행계획서 상 사업비 편성부분에 용역비 편성 및 세부계획 작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19. 작년에 K-클라우드 트랙으로 SaaS 전환과제를 수행했는데, 1) 같은 제품으로 올해 SaaS 고도화 지원이 가능한지? 2) 국외 CSP로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 ▶ 1) 네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지원받은 과제내용과 금번 사업 참여를 통해 개발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동일 제품에 신규기능 추가, 상품성 개선 등 SaaS로 고도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해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선정 이후 추후 기지원받은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심의하기 때문에 금번 과제 수행 내용이 기존 수행한 과제와의 차별화된 내용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셔야하고, 중복이 확인될 경우 선정되더라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2) 네, 가능합니다. 고도화 트랙인 경우, 국내/외 CSP와 국내 MSP 대상으로 Pool을 모집하였으며, 해당 Pool에 등록된 기업의 인프라 등 활용하셔서 과제 수행 가능합니다.

Q20. 고도화일 경우에, 기존 NIPA 유망 SaaS 지원 받은 아이템을 고도화를 위해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 가능 한가요?

답변

- ▶ 네,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지원받은 과제내용과 금번 사업 참여를 통해 개발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동일 제품에 신규기능 추가, 상품성 개선 등 SaaS로 고도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해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선정 이후 추후 기지원받은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심의하기 때문에 금번 과제 수행 내용이 기존 수행한 과제와의 차별화된 내용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셔야하고, 중복이 확인될 경우 선정되더라도 과제 탈락될 수 있습니다.

Q21. SaaS고도화 CSP 활용이 필수인가요?

답변

- ▶ 네, 고도화 트랙인 경우, 국내/외 CSP와 국내 MSP 대상으로 Pool을 모집하였으며, CSP Pool 활용은 필수이고, MSP Pool 활용은 선택사항입니다. 해당 Pool에 등록된 기업의 인프라 등 활용하셔서 과제 수행 가능합니다.

Q22. CSP는 사업 종료 후에도 동일한 CSP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사업 종료 후에도 해당 CSP를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CSP 사업자 변경 시 기관에 어떤 보고서 등을 통해 승인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 사업 종료 후에 기존 CSP 지속 활용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중도에 CSP 변경은 사업 담당자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고, 변경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별도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23. SaaS 고도화인 경우, 해외 CSP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 네, 가능합니다. 고도화 트랙인 경우, 국내/외 CSP·MSP 대상으로 Pool을 모집하였으며, 해당 Pool에 등록된 모든 기업 이용 가능합니다.

Q24. 해외 CSP 활용 가능할까요?

답변

- ▶ SaaS 고도화 트랙만 CSP·MSP Pool에 등록된 국내 및 외산 CSP기업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트랙은 국내CSP 기업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2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

Q1. 현지 대리점을(일본 총판 등) 통해서 해외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과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현지 대리점(일본 총판)과의 계약 내용 및 GSIP 과제에 대한 거래 증빙 등을 제출하셔서 현지 대리점과 본사간의 관계 및 GSIP 과제에 대한 매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 현지 대리점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 등을 제외한 본사의 최종 입금 기준으로 매출이 인정됩니다.

Q2. 해외 매출 중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할 경우 성과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Q3. 이미 외부 클라우드 인증을 받았을 경우 지원이 제한되나요?

답변

▶ 아니요, 지원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외부 클라우드 인증을 받으셨다면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반영을 해주시면 되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 추가 인증 필요 여부를 별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Q4. 기존 해외시장 진출 국가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는 성과 인정이 불가능 한가요?

답변

▶ 아니요, 성과 인정에 무관합니다.

기존 진출했던 국가에서도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고, 개발 및 사업화도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기존 수출 국가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Q5. 해외매출은 본사에 입금된 매출만 인정한다고 했는데, 해외지사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경우 증빙 문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해외 지사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1) 해외 고객과 해외지사간 인보이스 및 입금증 (2)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간 인보이스 및 입금증 (3) 인보이스 내 별도의 GSIP 과제 모델명(또는 버전명, 브랜드 명)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6. 외부 시험 인증은 V&V 성능인증과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 둘 중에 귀사의 서비스에 적합한 인증을 선택하신 후 수행계획서 내에 제안해주시면 되며, 협약 준비 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의 의견을 통해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외부시험 인증과 관련된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I) : 클라우드서비스확인제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클라우드확인및검증(V&V)
- 기타 KOLAS 인정기관의 클라우드 관련 인증 등 참고

Q7. GSIP, 유망SaaS, 초거대AI 지원사업 중복 지원시에 동일과제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지원한 경우 중복 선정도 가능한가요?

답변

- ▶ 각기 다른 내용으로 지원한 경우 중복 선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업별 선정평가 및 심의시 제안 내용들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중복 이슈가 있을 경우 협약 예정 취소 또는 사업 내용 중복요소를 제외한 사업비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선정 가능한 사업에 집중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역량 지원

Q1. 국내 초거대AI 모델 사용에 있어, CSP/MSP와 같이 별도 Pool이 존재하거나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나요?

답변

- ▶ 별도의 기준과 Pool은 없습니다. 상용화된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AI 모델을 사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사업 목적으로 수행기업의 개발 환경, 사업화에 적합한 국내 AI 모델을 활용해 제안 바랍니다.

Q2. 기존 NIPA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은 아이템을 본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 ▶ 네 가능합니다. 귀사 아이템에 AI 모델을 활용 등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 하여 제안 바랍니다.

Q3. 국내 초거대AI 모델 활용이 필수인데, 국내와 국외 초거대 AI 모델을 동시에 선택하여 개발해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 ▶ 본 사업에서는 국외 AI 모델 활용에 대한 비용은 지원 불가입니다. 단,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국외 AI 모델 포함된)를 국내 AI 모델을 활용 하여 고도화 제안은 가능합니다.

4

중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지원

I 공급기업 질의

Q1.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과 보급확산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중복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 ▶ 보급확산 사업 공급 서비스와 유망 SaaS 개발육성 사업은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급확산 공급 서비스와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 중복 참여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보급확산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일부 제한 가능(수요기업 질의 Q2 참고(15p))

Q2. 외산 클라우드도 공급 서비스로 참여 가능한가요?

답변

- ▶ 외산 클라우드는 공급기업으로 참여가 어려우며, 외산 IaaS를 기반으로 제작된 국내 SaaS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범주를 내국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3. 공급기업 당 수요기업 계약 수가 제한되나요? 제한되면 몇 곳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 ▶ 공급기업 당 수요기업 계약 수는 제한되지 않지만, 계약의 편중 방지와 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급기업당 계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21년 이전 등록 기업 : 4억원, '22년 이후 등록 기업 : 5억원)

Q4. 공급 서비스 신청 중 클라우드 서비스 판단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 클라우드 서비스 판단자료는 기업이 가진 서비스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예시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 클라우드 서비스 판단자료의 항목들은 공급 서비스로 등록하시려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자사의 서비스가 기술 운영 방법, 요금 체계 등 측면에서 클라우드에 해당하는지를 자체 점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 클라우드를 개발한 공급사라면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서비스 구조도, 구성 방식 등을 자체 보유했을 것이므로, 해당 개발 부서를 통해 관련 증적 자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붙임3. (참고) [가이드북] 클라우드서비스 선정평가자료"를 참고)

Q5. 공급 서비스 신청 시 클라우드 서비스 판단자료를 인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 ▶ 유관기관 및 외부 인증기관 등에서 인증받은 경우, 해당 인증서로 클라우드 서비스 판단자료를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Ex.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검증 확인서(NIPA),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KISA),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KACI), 클라우드 서비스 적격 평가 시험(TTA) 등)

Q6. 공급기업의 경우 선정된 이후 홍보해도 되나요?

답변

- ▶ 공급기업 선정 후, 공급 서비스 선정에 대한 자체 보도자료 등 사업참여에 대해 홍보는 기업별 자율적으로 추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 다만, 일반적인 홍보가 아닌페이백 등 홍보를 통해 위조, 허위, 이면계약 등의 부정 수급 사항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은 2022년과 동일하게,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되나요?

답변

- ▶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은 운영기관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관 선정 후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 다만, 정산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정산 신청)

Q8.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개발)은 완료되었지만 상용화(런칭)는 안 된 상태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 ▶ 서비스가 수요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도입지원이 가능하므로, 상용화가 된 서비스만 Pool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9. '23년 결산이 완료되기 전이라, '23년 매출액이나 재무제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답변

- ▶ ('23년 가결산이 있는 경우) '21~'22년 결산, '23년 가결산 자료로 작성
- ▶ ('23년 가결산이 없는 경우) '20~'22년 결산 자료로 작성(단, 작성 양식 하단에 관련 설명 표시 필수)
- ▶ 다만, 다만, 재무 건전성 검토를 위해 2023년 결산 완료 후 자료를 추가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수요기업 질의

Q1. 도입 컨설팅은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나요?

답변

- ▶ 데이터 기반 컨설팅은 운영기관에서 지원포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심화 컨설팅은 운영기관 중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수행합니다.

* 클라우드 지원포털 : <https://www.cloudsup.or.kr>

Q2. 클라우드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 및 선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 신청하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지원 항목에 서비스 이용 비용이 포함될 때에는 일부 제한됩니다.

(※ (중복 신청 사업이 모두 “도입지원” 유형인 경우)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료, 전환료 등 이용 비용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며, 선정 시에도 일부 제한 가능)

※ 중복 신청 사업 중 하나는 “개발지원” 유형이며, 해당 사업이 서버 인프라(IaaS) 등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지원이 없는 경우) 중복 지원 및 선정 가능

※ 중복 신청 사업 중 하나는 “개발지원” 유형이며, 해당 사업이 서버 인프라(IaaS) 등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은 제한 가능)

Q3. 수요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답변

- ▶ 네, 공급 서비스 Pool에 포함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수요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 컨설팅 등 서비스 추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선정된 수요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기관에서 도입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별도 문의 바랍니다.

Q4. 기존 수요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올해는 지원받지 못하나요?

답변

- ▶ 과거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20~'23년)은 올해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 예산 감소 등의 사유로 연속으로 지원 드리기 어렵게 된 상황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Q5. 초거대 AI 모델 활용지원은 무엇인가요? 신청기준이 따로 있나요?

답변

- ▶ 초거대 AI 모델 활용지원은 국내 중소 SaaS 기업의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한 SaaS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료를 최대 18.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도 신청 가능 하지만 초거대 AI 모델 활용 비용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며,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보다 초거대 AI 모델 활용 비용의 비중이 더 커야합니다.
- ▶ 신청 시 붙임2.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수요기업 신청서(첨부3, 초거대 AI 모델 활용지원 신청서)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Q6. 중소기업 확인서 등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하나요?

답변

- ▶ 공고일(2.23) 이후에 유효한 증명서류면 모두 인정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공모 마감일 이후로 맞추지 않아도 됨)
 - ▶ 공고 시점이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시점과 겹쳐, 기한 내에 확인서 재발급 처리가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전년도 중소기업 확인서('23년 발급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합니다.
- (※ 신청 시점 기준이며, 선정된 이후 운영기관을 통해 신규 발급분 요청 가능)

III 기타(설명회 QnA)

Q1. (현장 질의) 수요기업 관련, 중간에 선정되는 기업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4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답변

- ▶ 모집공고는 연중 1회만 공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요기업 접수 마감 후 순위를 매겨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나 배정된 예산을 전액 소진하는 경우가 드물어 후순위 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모집공고는 1회이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후순위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현장 질의) 기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던 기업이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답변

- ▶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던 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없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본 사업에서 과거 지원 이력('20~'23년)이 있으면, 올해는 이용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Q3. (현장 질의) 수요기업에서 지원하였다가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올해부터는 도입 가능성이 있는 3순위까지 선발하는 것을 권의드립니다.

답변

- ▶ 작년 탈락기업은 연속 지원 부문에서 발생하였고, 올해부터는 다시 연속 지원이 사업 내용에서 빠졌으므로 해당 없을 것입니다. 연속 지원이 아닌데 탈락한 기업은 서류 제출이 미비하여 탈락한 것이므로, 서류 접수 시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Q4. (온라인 질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의 올해 운영기관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인지?

답변

- ▶ 운영기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메가존 클라우드이며, 설명회 발표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5. (온라인 질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 트랙에서, 초거대 AI 모델 활용의 경우, 공급기업은 국내 기업인가요? (수요기업 측면에서 Chatgpt, Microsoft Copilot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 ▶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공급기업은 '내국법인'으로, 초거대 AI 모델 활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산 클라우드는 공급기업으로 참여가 어려우며, 외산 IaaS를 기반으로 제작된 국내 SaaS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범주를 내국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6. (온라인 질의) 기존 공급기업이며, 공급서비스를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 ▶ 네,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신규 등록할 서비스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메일 본문에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 등록 서비스는 클라우드 판단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신규 등록할 서비스는 클라우드 판단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온라인 질의) 운영기관이 확정되어있다고 안내주셨는데, 서비스가 AWS에서 SaaS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가존클라우드로 변경해야 공급기업으로 지원가능한가요?

답변

▶ 운영기관 중 메가존 클라우드는 컨설팅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과 무관하므로 현재 상태로도 공급 서비스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산 IaaS를 기반으로 제작된 국내 SaaS는 참여 가능하므로, SaaS 기업이 내국법인인 경우 서비스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범주를 내국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8. (온라인 질의) 수요기업을 공급기업에서 모집하는게 아닌 사전에 모집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선택하는 사업인가요?

답변

▶ 네, 맞습니다. 본 사업은 공급 서비스 Pool을 먼저 확정하고, 그 후 수요 기업 모집을 받아 선정된 기업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Q9. (온라인 질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 트랙에서, 초거대 AI 모델 활용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 지원 부문별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기준은 수요기업 공고문에 명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지원 필요성, 도입·활용 의지와 적극성, 기대효과)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원 트랙은 모두 서면 평가로 진행 예정이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전화 인터뷰 등이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10. (온라인 질의)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관련하여 '이용한 만큼'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공될 서비스 요금제가 월정액 형태인 경우 월정액 금액이 '이용한 만큼'의 금액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변

- ▶ 네, 맞습니다. 월정액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요금 정책에 따른 월 이용 금액을 '이용한 만큼'으로 간주합니다.

Q11. (온라인 질의) 연속지원 관련해서 올해도 10% 풀이 있는건가요?

답변

- ▶ 아닙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있었던 연속 지원 항목이 제외되었습니다.

Q12. (온라인 질의) 올해의 경우 수요기업 중 연속지원 기업은 모두 탈락인가요?

답변

- ▶ 연속 지원 항목이 제외되며, 과거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20~'23년)은 올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예산 감소 등의 사유로 연속으로 지원 드리기 어렵게 된 상황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